朝鮮日報 夕刊
本紙特刊竝十二面
發行兼編輯人 方應謨
印刷人 金炯遠
發行所 株式會社朝鮮日報社

社說

조선의어린이
유치원날을중심하야

一

오늘 본사주최로 전경성유치원 연합 원유회가 열린다 이번에 참가한 유치원이 스물넷이요 어린이는 일천오백이 되는바 이처럼 다수한어린이들이 공기조코 경치조흔 한룡산속에 모혀 깃부게 뛰놀기는 일년에 일차인 이원유회가 잇슬뿐이다.

유치원이 생긴지도 벌서상십년이란 세월을 지내엿고어린이운동이 생긴지도 역시십여년이 되엿스며 어린이원유회가 본사주최로 열니게 된것도 이미 폭회를 거듭하엿거니와 어린이게 대하야 보육으로 운동으로 유희로 한목을 보게한것은 그만큼 사회적대우가 달나진것을 이실지체가 스스로증명하는바다

二

오늘날까지 조선습속의 그못된점으로 말하면 첫재 어린이를 어른의 소유로 알어섯고 둘재 어린이를 어른피가티 맨드려고 하엿섯고 셋재 어린이를 어른이 압박하엿섯다.

그러나 어린이의 인격적존재를 인정하야 아못조록 어린이는 어린이답게 길우되좀더 놉히 대우하지 안호면아니되겟스니 이는 실로 신시대의도덕적 요구로서 우리조선인이 신생활을 함에잇서서 맛당이 먼저 어린이게 대한 대우부터 철저하게 고처야만 할것이다.

그리하야 어린이로 하여금 자유대로 쾌활하게 뛰놀게하야 씩씩하고 굿세고 발근인물이 되게함을 요한다.

三

어린이의 세계는 어른의세계와는 달라서 오즉 깃붐과 희망이 가득이 차서잇나니 이것을 억지로 어른의 세계로 끄러드리는것은 잘못이건만 재래 조선어른의 어린이를 교육하는 방법은 항상 이잘못을 조흔줄로 알고 행하야왓스니 어린이의 자유로운 발달을 얼마나 방해하엿겟는가 어린이는 장래의 꼿이니 꼿을 애호하는이 맛당이 꼿의 본성에 손상됨이 업시 각구야만 할것이다 그러치만 조선에서는 규모잇는 가정일수록 어린이게 대한 교육의방법이 너무나 엄격에 지내처서 일정한 범듀에 집어너흐려고 애쓰는것이 사실인즉 이로부터 특별히 류의함이잇기를 바란다.

四

최후로 말할것은 이원유회가 비록 하로동안 어린이운동회에 불과하지만 우리가어린이게 희망하는 모든리상이가운데 포함되엇스니 건강한몸과 쾌활한 정신과 그리고 조선인에게 가장필요한협동의 관렴을 길우워 줌에잇서서 이원유회는 이미깁흔일이라 할것이다.

그러나 이기회에 팅하야적극적으로 어린이의 심신그것에 대하야 일대 단련을 식히는한번에 소극적으로 권조선의 어린이게 대하야 어른된이 종래의태도를 고칠이잇기를 한번더 [illegible] 바이다.

滿洲船에의發砲
蘇側에는無責任
數次警告햇스나不顧한때문
蘇타스通信이發表

【新京發聯合十六日發】 去十二日黑龍江巡航中의滿洲國汽船紀實號가蘇聯軍에 射擊된 事件에關하야 타스通信社는하바로후쓰크의報道에基하는것으로서 十六日左와如히發表하엿다

五月十二日滿洲國汽船紀實號가黑龍江上流를巡航하고잇던中同汽船이蘇聯沿岸에近接하여오며 船上의數名이 公然히蘇聯側沿岸警備隊駐屯所附近을 撮影함을 認定하엿다 따러서 警備隊는同船에對하야停船信號를하엿스나 同船은 停止치안엇다 그럼으로警備隊는 空砲를 發射하야警告를 與하엿다 함에도 不拘하고 同船은 依然蘇聯沿岸에沿하야 巡航을繼續함으로再次에亘하야 警告하엿다 그러나 依然履行치안엇다 이境遇에 現行法規에從하면警備隊員全部를 派遣하야同船에 發砲하야 强制的으로 停船식히려는行動에對하야 充分한理由를 갓고잇스나警備隊員은 特히同船의 上方空中에向하야 數發小銃을發射한것이다 이로因하야 紀實號는 漸次蘇聯沿岸을떠나滿洲國沿岸을沿하야 遡航하여갓다

타스通信宣傳에
陸軍當局이反駁
要塞撮影事實全無

【電通東京電話】 去十二日北滿黑龍江과、松花江合流地點의上流約十哩의地點에서 惹起된蘇聯軍의滿洲國不法射擊事件에對하야 莫斯科의蘇聯機關通信타스는 右射擊는滿洲國汽船에搭乘한日本人이 蘇聯側의要塞을撮影하고잇슴을發見한까닭에警告의意味로 最初空砲를發砲한것으로 이警告에도不拘하고오히려 撮影을繼續하엿슴으로드듸어實砲를 使用한것이라고報하야 極力그妥當性을主張하고잇는대 此에對하야 陸軍은今日當局談의形式으로 左와如히發表하엿다

滿洲國汽船搭乘者로 露國의要塞을 撮影하려한 事實은決코업다 타스通信에잇슴과如히蘇聯當局의 發表는蘇聯一派의 宣傳으로自己의不法行爲를 欺瞞하야此를 正當化하려는慣用手段이라고 斷定하지안을수업다 前般興凱湖附近에서蘇聯軍用機가 不時着하엿슬때에도 蘇聯側에서는此를機關故障때문이라고宣傳하엿스나事實은 決코그런것이아니엿슨事實에비추어잘알수잇다 今回의問題는興凱湖附近의軍用機 不時着問題와 好一對로서全혀當로안은逆宣傳이라고 할것이다

또陸軍當局은 目下極力으로眞相探究中인대어찌하면 關東軍當面의 問題로서滿洲國側과倂行하야嚴重抗議를할模樣이다

西歐와親善確保後
極東政策再强化
蘇聯의對日態度緩和의裡面
外務省當局의觀測

日蘇外交關係는 對蘇交涉에自信이잇는 廣田外相의 着實한手法에依하야 一時險惡을傳하던 兩者의關係를 漸次平常的緩和에 引導하여왓는대 就中 最近에이르러 漁區入札問題、페시코프問題의解決及北鐵讓渡問題進展等 凝結된大小諸懸案의 氷解作用이 顯著하여진것은 相當히注目된다 그리고 蘇聯側이 最近에至하야 무슨때문에 이가튼 讓步的態度를 取하게되엿는가?하는問題에對하야는 外務當局에서도그眞意가 어데잇는가를 注目하고잇는대 當局의觀測에依하면 大槪다음과갓다

即 蘇聯은 第二次五個年計劃의 完成에依하야 國力을充實하게까지는 絶對로他國과다투지안으려는 方針下에對外的으로는 專心 列國과의不侵略條約締結을 外交上의主要目標로하고 努力하고잇다 이때문에 米蘇復交를獲得하고 更히 歐洲의 接境國과는 現在 十三個國과不可侵定義條約을行한同時에此等諸國의 支援下에聯盟加入實現을 피하고잇다 그런대最近蘇聯은 獨波間에 平和協定이 成立되엿슴에威脅을感하고 波蘭에對하야獨立及安全의 相互保障을提議하엿섯스나 이것이拒絶되고 다음同一한提議를獨逸이하엿다고 一蹴當하엿슴으로 相當히 焦慮하게되엿다 게다가米國으로부터 承認은바덧스나 債務問題는依然 難關을벗지못하고또聯盟加入運動은 波蘭及그의軍事同盟國인루마니아의 [illegible]로 모처럼 昨年런던에서 獲得하엿던蘇聯과의 平和保障도 別로 實質的으로는 큰效果업게되엿슴으로 此에 昨夏以來 西部에서의 成功을 自負하며 頻頻히 强硬한態度를 示하던 極東政策에 이番에 그氣勢를 구퍼서 對日互讓方針에 轉移한데不過한것이다 딸아서 蘇聯의 外交政策이「西歐의平和保障」「東方의 武力化」라는 根本方針을 變更하는일은 絶對로업고 今後西歐에잇서서의 親善保障及 聯盟加入의 實現等 情勢의推移如何에依하야 蘇聯은忽然 東方强化政策의 展開에 邁進치안흘것으로 外務當局은觀하고잇다

蘇聯의攻擊에
英國은守備的
英蘇의經濟抗爭

【哈爾賓電話】 最近英蘇間에在한 政治的 및經濟的軋轢에關하야는 世界의目的이되고잇는바 本日哈市露字紙자라는英蘇間의 經濟的鬪爭에關하야大略左와如한 記事를揭載하고잇다

「蘇聯邦은 터키스탄을 經由하야印度의國境에達하는 自動車路의 建設을行하고蘇聯의商品은이에依하야 蘇聯邦에서印度에直接送達케되어잇는데 이와同時에共産主義의宣傳도蘇聯에서印度에自動車로直送케된것은이미報道된바이다 右는 英國植民地에서 英國及蘇聯間의經濟鬪爭이明瞭이되여온事實을明示하는것인데最近獨逸「드렌스·오시엔」電報는蘇聯石油輸出機關과埃及商業代表者에商談이잇서蘇聯邦은埃及에서棉花를輸入하는것을交換條件으로하야埃及及蘇聯石油販賣를爲한 不祥크의 建設을計劃하고잇는事實을 報道하고잇다 右協定은近日成立될模樣이며다시倫敦報는 英國議會는蘇聯邦의덤핑에關한討議를行하야 米國馬來群島及濠洲에在한 蘇聯邦의棉花團體는 英國의利害를 脅威하고잇는事實을證明하얏다고報道하고잇다 右二電報는英蘇間의經濟的競爭에新時徵을附加한것이다」云云

英白의協議

【聯合倫敦十六日發】 一般軍縮會議幹部會는 來二十九日주네브에서 開催키로되엿슴으로 白耳義外相 이만스氏는英國外相과 協議를遂하기爲하야十六日倫敦으로出發하엿다

軍備縮少會議
一切淸算키로決定
但成案이업서一般委員會에提議
大國代表懇談結果

【電通주네브十六日發】 十五日大國諸國代表間에 重要懇談을한結果 軍縮會議는 一切淸算하기로 決定하고大國代表等은其方針에關하야 愼重硏究中이나成案이업슴으로 五月二十九日軍縮一般委員會에 提議할터이다同委員會에서도 他에有效한對案이업슴으로 協議치안으리라고觀測된다 그리고軍縮會議無期延期說을 新聞에暴露한데對하야 各國代表는 異口同聲으로否定하고잇스나 後에이르러各國이모도 無期延期로될는지도알수업다고말하엿다

近衛公出發
十七日午後三時解纜

【聯合東京電話】 議會休會의小閑을利用하야 今秋프린스톤大學에入學할令息文隆君(二〇)과맛날兼私的外交官으로 日米親善을圖하는同時에 日本文化를米國에紹介하기爲하야 十七日午後三時橫濱에서解纜하는 淺間丸으로渡米할貴族院議長近衛文麿公은門倉貴族院書記官內田專修大學敎授와갓치 午後零時半東京驛을出發하야 臨港列車로出發하엿는대 華胄界의名門이오國際的으로도知名의士인만큼 駐日米國大使를비롯하야 朝野의名士多數의 餞送裏에 東京을出發하엿다 公은 米國各地에名士와 會見하고極東問題、中國問題에關하야 意見을交換하고八月中旬에 歸日할豫定이다

軍縮根本策說明
海相等近衛公과會見

【電通東京電話】 大角海相長谷川次官及加藤軍令部次長은十七日麴町原田男邸에서近衛公과會見하엿는대 時期가時期인만큼注目되여잇다 그리고右는海軍의次期軍縮會議에臨할海軍側의根本方針即

一、日本海軍은旣存條約即艦種別比率의更改를要求함

一、日本海軍은國防의安全平等即軍備權의平等을要求함

等에對하야其理論的根本對策을說明하고 近衛公의諒解를求한後 軍縮에對한最近의 米國과英國의情勢와列國의軍備充實狀況等에關하야說明하엿다

米國軍縮全權
데氏壽府向發
米國新提案提出

【聯合華盛頓十六日發】 來二十九日부터 開催할一般軍縮會議와幹部會에出席할 米國軍縮全權데비스氏는 十六日紐育으로出發하엿다 同氏는十九日同地에서出帆할 아키다니아號로주네브로赴할터인데 데비스全權은 今回의軍縮會議에서 米國의新見解를 提案할터이라고推察되는바同氏의 內容에關하야데비스氏는 何等說明을行치 안코一切緘口不言하엿다 一方 出發하기前에 데비스氏와軍縮問題에關하야意見을 交換하고 米國側의方策을授한 루즈벨트大統領도 이點에對하여는一切言明을避하고잇다 그리고國務長官헐氏는 데비스氏의 出發에際하야左와如히 聲明하엿다

데비스氏는現在의軍縮問題의難局을打破하기可能하다는 希望을抱懷하고잇다 米國은世界平和를招來하는것이라면 如何한方策임을不問此를支持할터이다

齋藤駐米大使
日本立場闡明
十六日라듸오로서

【電通華盛頓十六日發】 齋藤駐米大使는 前般外務當局談이世界에波紋을惹起한以來 今日처음으로 라듸오를通하야全米國國民에게左와如히 日本의立場을闡明하엿다

外務當局談이 意外에世界的波紋을惹起하야 日本에對한 [illegible]를惹起한것은 實로遺憾이다 廣田外相은 그루大使에對하야「日本은眞心으로中國의領土保全을 希望하고또中國에關한 現行諸條約을遵守하고잇스나 東亞의 秩序維持라는 口實下에 行하는 外國의 不信行爲에는無關心할수업다는것을 明言하얏다 故로予는米國國民은 日本의立場을諒解할줄로믿고잇는다 日本이東亞에서取한 行動의動機는米國이自國에近接한地方(카리브海方面을指稱함)에서取한行動이 其地方及世界에利益과共同繁榮을招來하기爲함과 同一한것이다 米國이 [illegible] 반드시東亞에잇서日本의立場에同情的考慮를拂할수잇스리라고予는確信한다

滿洲國通郵問題는
行政的技術的일
萬國郵便聯盟에는參加不能
諮問委員會에서決定

【聯合주네브十六日發】 聯盟滿洲國諮問委員會는 十六日午後會議에서 滿洲國通過郵便料金取扱에關하야 依然滿洲國不承認問題에基하야 左와如한大綱을 採擇하엿다即

滿洲國通過郵便料金은 政府의 取扱事項이 아니라 此는 今後郵政當局間의 問題로解決할問題이다 但郵便關係의折衝에當하여는 이것이決코滿洲國承認의 手段이아니라는것을 明確히할것을 條件으로함

右에依하야 委員會는左와如히 決議하엿다

一、滿洲國郵政當局은 萬國郵便聯盟의 規約에依하야萬國郵便聯盟에 參加를申請함을不得함

一、그러나 聯盟加入國郵政當局은滿洲國通過 郵便物을包含한郵便物에對하야 一時的處置를取하여도無妨함

一、上記滿洲國通過郵便物에關한一時的處置는 各國政府相互間의것이안이라純全한行政的또는技術的의것이다

一、聯盟加入國郵政當局은이問題에關하야 文書往復에當하여는以上의趣旨를宣言한通告書를添付하여두기를勸告함

그리고 麻藥類問題委員會는滿洲麻藥類輸入統制問題에關하야 滿洲國駐在各國領事에 麻藥類輸入許可證을發行케함이 可能한가 못한가에關하야 兩片諮問委員會의意見을 徵하기를決議하엿다 諮問委員會는 [illegible] 聯盟에提出한提案에依하야 聯盟에서取扱하지안을수업게되리라고하엿다 十六日委員會에提出된 報告作成에當하여는 米國代表의 援助가有力하엿든것으로 此에依하야 米國의立場은 困難하게되리라고觀測된다

上海塘沽間海底線
交通部回收協議

【電通上海十七日發】 國民政府交通部에서는上海、塘沽間의 海底電線合同契約이 五月二十日滿期로됨으로 同線을中國側이回收할려고 目下大北電信會社와接收에關한 協議를 行하고잇다 右海底線은北淸事變時에 三十年의期限으로 大北電信會社가敷設한것으로 三年前滿期와함께交通部와大北會社의 共同經營에變更한것으로 今回그延長期間도滿了하엿슴으로 完全히中國側의손에 너으려는것이다 또中國側에서는同線의買收를繼續支拂하여왓슴으로最後의分을支拂하고 電線機械等全部의接收를完了하고 交通部의管理로하기로하면그만이라고한다

볼파紛爭
武器輸出國責任

【聯合주네브十五日發】 볼리비아、파라과이兩國間紛爭의因인그란차코事件에關한 聯盟委員의報告는 十二日理事會에提出되엿는데 問題의責任은차라리武器彈藥을輸出하는各國에잇다 此紛爭을終熄식히기爲하야는 各國이協力하야此等二個國에對한武器輸出을 一切禁止하는以外에 他途가업다고 主張하게된것은 當地에서不少한 센세이숀을惹起하고잇는데 來十七日理事會에서 英佛代表는 右報告書에關하야 兩國에對하야 武器彈藥의 輸出을一切禁止하기를 主張한重要聲明을 發表하게되리라고期待되여잇다

某重大問題로
首相에重要報告
藤沼松本兩氏가

【聯合東京電話】 藤沼警視總監、松本警保局長은 十七日午前九時十分相前後하야 首相官邸에齋藤首相을 訪問하고各別히會見 某重大問題에對하야重要報告하고更히 重要協議를거듭한後 兩氏는同十時二十分頃에辭去하엿는데 그事件進行은各方面으로注目되고잇다

奉祝奏上終了
園公歸興
政治的工作은相當

【電通東京電話】 西園寺公은 二年만에去二日上京한後 皇太子殿下御降誕奉祝을奏上키爲하야參內한것을 비롯하야牧野內府、湯淺宮相、齋藤首相、高橋藏相、山本內相、等과會見懇談하고大體의用件이終了되엿슴으로 二十日午前十時十五分東京驛發興津坐漁莊에歸還키로되엿다 今回의園公의上東은 皇太子殿下御降誕奉祝이主要한 用件이나今般上東은機會로政局上에여러가지로 工作을加하엿다는것은숨길수업는事實이다 即樞密院議長에一木男을就任케하야 政局動向에暗示를與한것을 筆頭로牧野內府、齋藤首相等과의會見에잇서서는 當分政局에異常업도록 指示하는等園公으로서는 相當히政治的工作을남긴으로 園公도滿足하야東京을떠나리라고推察된다

本年最初의
米穀顧問會議

【聯合東京電話】 農林省米穀局本年度最初의顧問會議는 十六日午前十時半農相官邸에開會 農林省으로부터 後藤農相荷見米穀局長以下係官 顧問側으로牧野氏를除하고 上山東 高田 有賀 安藤各氏出席 後藤農相의人事가잇슨後 米穀局長으로부터 臨時米穀移入調節三法律施行令 米利用增進硏究의經過 五月一日의在米狀況等에關하야報告意見交換을한後現下의問題인缺乏季節調節米拂下等에就하야 主로東 有賀氏로質疑가잇섯고午後零時半散會 午後一時부터米穀統制委員會가열녀 最近의米穀事情에關한 重要報告質疑가行하엿다

入京한代議士團
朝鮮統治實情聽取

昨夕入京한 衆議院滿洲國派遣議員團團長 濱田國松氏外十二名의代議士團은 十七日午前十時三十分總督府를 訪問하고總督室에서 今井田總監以下總督府各局長列席下에 米穀問題、思想問題等을 中心으로朝鮮統治의 實情에對하야 約一時間說明을聽取하엿다 會見後一行은景福宮、博物館等을視察하엿는데今井、田子、豐田三政友代議士는特히 農林局長室에殘留하야渡邊農林局長、古庄農政、鹽田林政兩課長、石塚、吉池兩技師로부터 米穀對策에關聯한朝鮮米問題에對한 한거름나아가事務的으로 當局의說明을詳細聽取하엿다그리고 一行은正午

明月館本店의 銀行會社團招待午餐會에臨하엿다

人事·集會

▲五十嵐四郞氏(小林商店大阪支店) 朝鮮事情視察次昨十七日午後五時入京

▲飯田良輔氏(東京遠藤藏輔商店) 同上

▲堀內伊太郞氏(大阪堀內商店) 同上

▲鳥居由太郞氏(大阪田邊五兵衛商店) 同上

▲吉田泰丸氏(東京日東合名會社文化營養硏究所) 同上

▲谷口作治郞氏(大阪昭和商會) 同上

▲谷 博氏(大阪谷田春堂) 同上

▲高橋龍一氏(大阪高橋盛大堂) 同上

▲津村良平氏(東京津村順天堂) 同上

▲中井卓次郞氏(東京天醫堂) 同上

▲大林和雄氏(東京大林藥品部) 同上

▲岡崎福三郞氏(大阪鹽野義商店) 同上

▲志村文藏氏(東京우테나化粧料本舖) 同上

▲九里乙彥氏(東京山岸商店) 同上

▲山田輝郞氏(大阪山田安民藥房) 同上

▲山口佐太郞氏(大阪竹村製劑所) 同上

▲藤澤友之助氏(大阪藤澤友吉商店) 同上

▲藤井米次郞氏(東京藤井得三郞商店) 同上

▲南 勝氏(東京東亞藥劑) 同上

▲鈴木淸二氏(東京鈴木日本製藥社) 同上

▲境長三郞氏(高等法院檢事長) 海州地方法院及海州刑務所事務視察次로 安達主任書記同伴十六日出張十九日歸任豫定

▲色部貢氏(朝銀理事) 大邱의銀行大會出席次로十六日夜大邱行

▲吉田鐵道局長은 荻原監督課長帶同으로今十七日午前八時京城驛發列車로京東、京南兩私鐵沿線視察로赴하얏다 明十八日午後五時着歸任豫定

夕刊後의市況 (十七日)

朝取短期

	後引	高値	低値
朝取	—	六九〇〇	六九〇〇
朝新	五三〇〇	五三一〇	五三〇〇
鐘新	一三三五〇	一三三五〇	一三二五〇
大新	一七三六〇	一七五三〇	一七三四〇
東新	一三六五〇	一三六五〇	一三五五〇
日先	—	—	—
日新	—	—	—
日魯	—	六〇〇〇	六〇〇〇
日毛	—	—	—
沛取	—	—	—
帝人	—	—	—
日削	—	—	—
渡新	—	—	—
安取	—	—	—
蓄二	—	二〇〇〇	二〇〇〇
朝信	一一三〇	一一三〇	一一三〇
拓新	—	—	—
金鑛	—	—	—
朝鐵新	—	—	—

東京短期東新

	後場	高値	低値
大引	一一五三〇	一一五三〇	一一三七〇

大阪短期氣配

大新	一二五〇〇	(不變)
鐘新	一二一五〇	(二〇低)
日毛新	一三五七〇	(一〇高)
東新	一七三三〇	(不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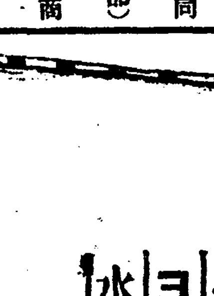
橫濱生絲: 當限 [illegible] 先限 [illegible]

美容第一課는 우선살결을고르게함에잇고 美肌料選擇의第一課는우선 ヨーヂ水이다

皮膚의良藥 ヨーヂ水

여드름·죽은깨·무좀·마른옴·습진땀띠·진무른데·濃疱疹·濕瘍·火傷·切傷·面[illegible]·刀한뒤·化粧前에써서좃소

定價二十錢부터·全國有名藥店에잇슴니다



美膚料로서의ヨーヂ水

터할말업시、理想的인化粧前에매만지는데第一條件이란皮膚를美化하는作用의强大한것을要합니다。다음에、여드름과、죽은깨를업새고、번듸기는점을지우며、다시要性의皮膚病菌을死滅식힐수잇는것이아니면아니됨니다。그럼으로、몸차림자리에、가장머리를압흔婦人은單純한化粧前에매만지시는每日의美容法에서、다시한거름더나가皮膚疾患에對해서良効잇는ヨーヂ水와가튼著名한美膚藥을使用함에서、永遠의젊은살결을保存할뿐外라、벌서、잔주름이보이는中年婦人의살결이젊어지는데도한큼도움이될것입니다。

初夏부터男性의煩惱될皮膚疾患

추위의겨울이겨우물러가고、꼿이피며그것이지면、스프링코-트도버서버리고、山野의行樂도차차자주어질때는男性에게、夏中또는、가을철까지憫心하게되는皮膚病에걸리기쉽게됩니다。처음에、무좀이復活하고、옴부습진에땀이배는데서도툴도틀始作됩니다。中學生諸君의여드름도점점活潑하게排出되담니다。조금햇슴적부터、ヨーヂ水를발너서이것들의腦心되는곳을물리치도록勸합니다。

▲小兒皮膚의保護

冬服이春服으로가려입게되면、애기네들의運動도猝地에活潑해집니다。땀띠、뒤가、땀띠가되고、너머저傷處난데等、애기네의皮膚保護에、꼭ヨーヂ水一瓶을準備해두시오。其他에기네의흔한、胎毒、무좀、膿疹瘡等도가장조흔効能이잇다고、大端한好評을밧고잇슴니다。

ヨーヂ水는、全國有名藥店、百貨店藥品部等에잇슴니다。定價一瓶二十錢부터三十錢、五十錢、壹圓、貳圓、四圓

本舖 東京日本橋區本町 玉置合名會社

待望의是日은오다
오라! 天使의野宴으로
全京城幼稚園(聯)遊會는今日
雨天이면明日로順延

경성시내에잇는 스물네곳 유치원이천여명원아들이 고사리 가튼손가락을꼽아가며 잠을 자지 아니하고기두르든본사주최제륙회 전경성유치원 원유회(全京城幼稚園聯遊會)는 신록이 바야흐로 욱어저 어린이들의 순진그것을 상증(象徵)하듯하는 첫녀름의 풍향과 가코롬찌르는 경무대(景武臺)넘은 잔디밧에서 축복할이날을 맛게되엿다 이모든이 생긴지도 벌서엿섯돌! 처음은 단순히 어린이들의원족회에 지나지못하든 노릇이회수를 거듭할수록 참가하는단체는 경성시내는 물론이요시외까지도 경성부근 유치원이란유치원는 전부참가 하게되여 오늘에 이르러는 이천여명 어린이들의 가족을합하야 이만여명 권솔이총동하는 성대한 모듬이되엿다 축복하든이날에 이천여명 어린천사들의 깨끗한노래와 순진한춤은 오늘오전아홉시반 정각에부드러운 가슴을버리고 기두리고잇는 경무대벌판으로 발길을옴김과함께 우리들의눈압헤 천국의〃파노라마〃처럼버러지려니와 측후소에서전하는바오늘의천기예보를 드러보면 오전은호리다가오후에비가올듯하다는소식이잇스나 아츰부터 예정대로진행하지 못할만큼 비가내린다면내일로 요일로 연기하기로 되엿다 오라! 이천여명 어린천사들의려사적 야연장(野宴場)으로! 모혀라! 신록욱어진 경무대숲속으로!

滿洲國서日本警官 二千名採用計劃
來七、八月頃實現될듯

【新京】 만주국에서는건국초부터 각경찰긔관에 일본인경관을 다수히채용하엿는데 금번또다시 지방의경비긔관을 충실히하고저하여 일본인경관을 약이천명가량을 채용할계획을 하는중이라는바 실현은 래칠팔월경이나 될듯하다하며 채용하는경관이천명중에서 칠백명은 관동청순사중에서 채용하고 그여는조선과 대만등지에서 채용하리라한다

安養鍾紡 女工檢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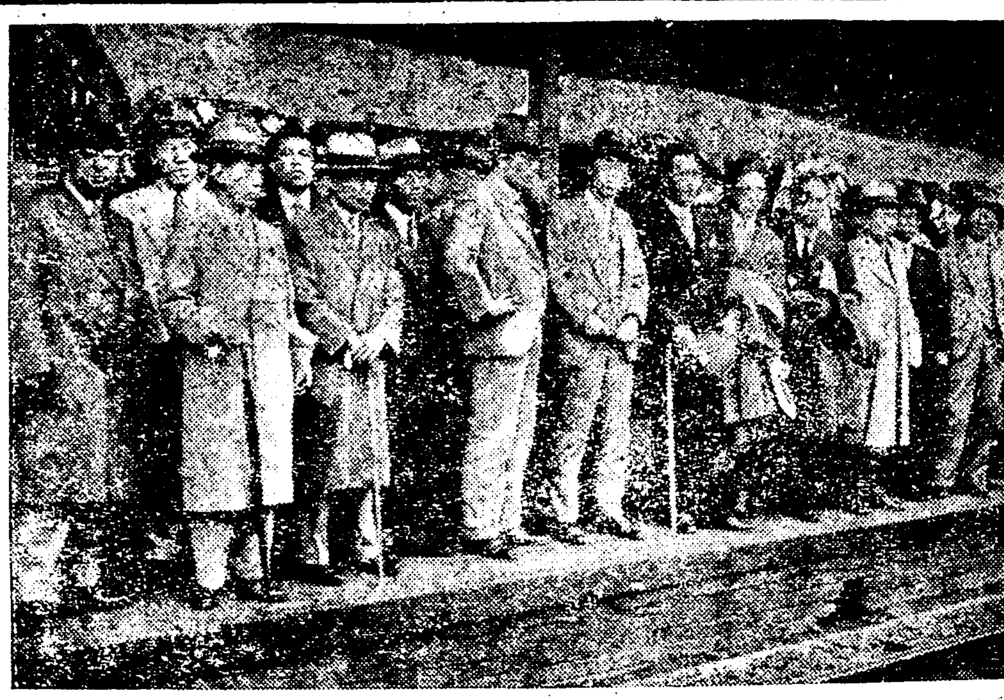
지난일일 메이데이 당일에영등포경찰서 고등계에서는 대활동을개시하여 안양종연 방직공장(安養鍾淵紡織工場)에서녀직공사오명을 검거하고 또수일전에서원三명이 수원군 성호면세교리(水原郡城湖面細橋里)에출장하야 그동리에거주하는 홍종갑(洪鍾甲)(三?)이라는농민을수사하엿스나 마침행방을 감초고 게로그대로돌아와다는바검거된녀직공중에는전긔수원군성호면세교리에원적을두고공장긔숙사에긔숙하고잇는홍화순(洪化順)과최경창(崔景昌)이란십칠세의 두녀성이엇다고한다 그것은이번 메이데이에 안양종연방직공장내에서 이러난일에 그들이중심인물이나 아니엇는가 추측되며 검거는 확대될는지모른다 그리고 최경창은 자긔아버지최병찬(崔炳燦)이가 일즉이 수원(水原)지방에서 사회운동을 하다가죽엇고 어머니는 지금수원에서 품을팔어 지내는터이라고한다

出張한不良少年

평양수정(平壤壽町)륙십팔번지중도호부(中島好夫)(一八)와앵정정(櫻町)팔번지 하처정의(下妻政義)(假名)(一八)등두명은공모하고서울로와서십일일오후한시경시내본정(本町)사정목사십륙번지잡화상횡전원근(橫田元近)의집에들어가서『샤쓰』한개를비롯하야 본정일정목삼중정(三中井)오복점과타 수개소에서 물건을 절취한것이 탄로되야 십륙일 오전열한시경 경성역삼등대합실안에서 본정서원 에게 검거 되야방금어서에서 취조를 밧는중 인데그들은 평양모중학교에 재학한일이 잇든학생으로서로 공모하고 물품을절취해여다가 팔어서 소비하고다니는불량소년이라한다

徒步一個月 烈女의幻滅

십칠일 오후세시경 본정경찰서 보안계에는 전북김제군 김제면 순동리(金堤郡金堤面順洞里)에사는최한순(崔漢順)(二六)과그의 친어머니 박국린(朴菊麟)(六?)의두명이 차저와서 자긔고향으로 도라갈로자를 마련하여달라고애원하여왓다 그들의말을 들어보면 전긔최한순은 시골서남편리윤삼(李允三)(元)과아들만석(萬石)(四)과 그의어머니 전그명찌의 네사람이 자미잇게생활하여 왓섯는데 작년십일월부터 그의남편이 중풍병에걸이여 전신불수가되여 고민함으로의사에게뵈인즉 돈만잇스면 곳칠수잇다하나 치료비가업서 주저하고잇다가 그의외삼촌 맹윤태(孟潤泰)(六?)가 서울중림동(中林洞)에산다는말을듯고 돈을어드러 올려지난달 초이튼날에자긔시골을 떠나도보로 달포를거려서 겨우이달 십륙일에 서울까지 와서그의외삼촌을 차즈나그는 벌서삼년전에 어대로 이사를갓다하야 낫설은 서울에서 어이할수업슴으로 전긔와가티 자긔고향에내려가서 병든남편을돌보게하여달라는것이다



東京大阪著名實業家 朝鮮事情視察次入京

동경대판에잇서서 저명한실업가로중정락차랑(中井京次郎)등정미차랑(藤井米次郎) 진존당(?)(神村兵平) 산강건삼(山岡建三)씨등이 십삼명은 금번조선사정시찰차 십칠일오후다섯시 경성역착렬차로 입경하엿다

안잠자기求한다고 떡장사돈을騙取
다라운詐欺漢의殘行

십이일 오전열시경에 부내현저동(峴底洞)이백십번지에사는정씨(鄭氏)(三?)가떡(餠)고리를이고봉래교(蓬萊橋)다리를지나가라할지음에 이십사오세쯤된 남자하나이 압흘막어서며 『안잠자기』를 하나어들터인데 맛당한사람을 하나소개하라고 함으로 전긔정씨는 자긔를소개하여달라고하고 그가 요구하는대로 돈이원륙십전을 주엇는바 그자는 정씨를데리고 룡산철도종업원양성소(鐵道從業員養成所)압까지와서 잠간기다리라고 하고어데로 종적을감추엇다하야 정씨는 소관룡산서에호소하엿다

가치自殺코저 愛女를毒殺
四年不服하고控訴

남편이첩에만 정신이빠지고 본처는 돌보지안는것을 비관하야 자살을 하기로 결심하엿는데자기혼자서 죽을려하니 늙병으로신고하는 세살먹은어린 딸아히가 걱정이되여그아히도 죽여버리고 자기도마저죽어 버릴양으로먼저 어린아히에게 양재물을먹여서 죽여 버리고 자기는 그만죽을 기회를 노치고 드디어살인죄로 징역 사년의 판결을바든인정비극의 일막을이룬 젊은 녀자의범죄사건이잇다 피고는 충남보녕군청라면내현리(保寧郡靑蘿面內峴里) 김모(金某)의안해신룡희(申龍喜)로서른네살먹은 녀자인데 그는열일곱살적에면서기로 다니는 김모에게 시집을 가서자녀 삼남매까지낫코 살아왓섯다 그런대 제작년정월부터 남편은첩을 어더가지고 따로살고 본처는 전연돌보지안함으로 비관끄테 그해 십이월십이일 아츰에병으로 기루기곤란한 세살먹은어린딸아히를 양잿물을 먹여서먼저 죽여버리고자기는집안사람들에게 들켜서재머지못하게되어자살의 목적을 달하지못하고 급기소리운 살인죄인으로 법정에나서게되어 얼마권에공주(公州)지방법원에서징역사변의 판결을밧고 경성복심법원으로 공소해왓는데 복심공판은 오는이십이일에 열리기로되엇다

子婦가投身하자 媤母도따라自殺
家庭싸홈으로姑婦가俱死
蔚珍郡下에慘事

【蔚珍】 지난오일오전십시경에 강원도울진군온정면 광품리(蔚珍郡溫井面廣品里) 정동석(鄭東錫)의처 리성녀(李姓女)(五?)와그자부김씨(金氏)(二?)는 십여일전부터 반목을 하여오든중 자부김성녀는 물(水)에빠저 자살한다하고 출가하야 그길로 자긔친정에 가서 피신하엿든바 정동석의안해 리씨는 그것을탐지하고 오일에가서 다리고오면서 만호장운(市人)에게거저년이 물에빠저 죽는다터니 죽지안코 제친정에가 숨엇다가오는다고팡 고통하며 모욕을하엿는데 이것을당한 며느리는 그길로그동리 압물에 달려가서 물에빠젓는데 그것을본 시어미도 겁이나서뒤 물이어 물에달려들어 함께죽엇다한다

春畫圖出處探索

십륙일 오후일곱시경 본정경찰서 고등계에서는욱정(旭町)일정목경과(更科)배달부김만식(金萬植)을거동이 수상하다하야 인치하여다가 취조중 우연히춘화도한장이그의주머니에서 발견 되엿슴으로 그의출처를 추궁한결과그는남대문시장 채소파는곳에서 중국인모에게 샀다고함으로 이서에서는 이중국인을 체포코저활동중이다

函館火災民 同情演劇盛況
收入金送致依賴

【瑞興】 지난오일서흥제중의원(濟衆醫院)주최와동아、조선양지국 후원으로 함관화재민동정극을신장손(申長孫)군주연하에 흥행한바 순이익금이십구원임으로 본사서흥지국에 의뢰하야 화재민에게전하여 달라고부탁함으로본지국에서는본사로송금하엿다

演說藥行商篇 【六】

『찍ー찍ー찍ー끼약ー깍ー깍』날저한대낫××연뒤인터에서륙신열저한양복쟁니가들맹이하나를 땅에다노코이가치 괴괴한소리를내인다 이괴상한 소리는엇지드드면 까치색기소리도 갓고쪽쪽비에게 물려가는 닭이소리도갓다

이런소리를 내는 양복쟁이는연방돌을 발로두르되 이리저리지굿지굿하면 혼자말가든되큰소리로 『이놈어왜작고나올라고들어』하면서 그밋헤무엇이잇는드시말허야지나가는사람의호긔심(好奇心)을도발(挑發)식이고잇다 그러나 한사람두사람 힐끔힐끔보고는 그대로지나가버린다 양복쟁이는 다시그소리를내이고 돌을 지굿지굿누르면서『이놈이 그래도나오려거든여보여보 이것좀보고가시우 아이놈이 작고떠들고 나오려고드는구려……』마츰내 그는행인을 이가러붓들드린다

○……○

입때것 사람하나 뎜비지안튼곳에 어듸서엇더케 알고쫏차오는지조무래기 어린아이들이 오무르른모혀와서 양복쟁이를 중심에두고 동그러케 원형(圓形)으로둘라선다 『우물을파면고기가생긴다』고양복쟁이가자리를잡으니 조무래기에서 시작하야차츰사람이 꾀이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아이들만모엿스나 웅게중게몰라선 사람의 그림자가보이니까 갑싼호긔심이 대중업시 풍부한 도회사람들은고개를 기웃기웃하다가는 마츰내는 거롬을 그곳으로옴긴다 그리하야 양복신사가단장을 멈추고 상점집차인이 자전거를쉬어며 질가든 귀부인(?)이『파라솔』그림자를 던지고 『라켓』든 전문학생이 발길을돌려 『피ー끼』소리를 낸지 이십분안되면 무려백명갓가운 사람이담을이룬다

○……○

사람을 이만큼 모아노은양복쟁이는단장으로 큰원(圓)을 그웃고나서『에이놈밋해서 무엇이나오나보십쇼 에ー또나온다 나온다 에ー또보십쇼 꽈다하면못봅니다』큼시에 독개비목이라도비여올드시 한참을 떠들어모인사람들의 정신을혼히 그문제의물로모아노흔다 똑똑 하고도미련한것은 서울의거리를 거리다니는사람들이다 어른 아이할것업시 모다들그속에 잡말도무엇이 드릿는가하야 귀혀시선들이 이곳으로만쏠린다 이번에는 양복쟁이가귀띄하고 기천에는 양복쟁이가궈ㄴ하고 기천옷정작게 한마듸한다음 또짓거리기시작한다

『에ー또나온다나온다、유목사가나온다、유목사가나오니다、사람들아 신부님이 나오는것은 뭇지다』

○……○

얼마를 짓거리다가 양복쟁이는 돌을들고 그밋헤서버트나무로 맨든 배암한개를끄내들고 유목사가 나왓다고 하는것이다 어와가려 사람들을 난아노코는 결국하는소리는 무엇인가하면 독개비기름이나 웅담(熊膽)그리고 해구신동풍의 이름조흔양약내노코사라는것이다그리고 그소위웅담해구신이한개에이십전십전!이것을도약이라고하야서『허다못해안질나거든 눈에를더어도 쓸개는쓸개니사갈가』하고 부시장지롤버리고 담배가루두든돈을 끄내는 시골로인이잇는대는 차풍이아니나 나올수업다

今日 第四回 全朝鮮中等籠球大會

十八日午后三時四十分 延專球場
◇第一日 (A靑學─徽新、公民─大東、協成─養正 京實─中東、A의勝者對第一高普)
主催 延禧專門學校
後援 朝鮮日報社

普專主催 中等蹴球 中東一勝

普成專門學校主催 第七回全朝鮮中等校蹴球大會第一日은 豫定과가티十七日午後三時三十分부터徽文球場에서開幕되엇는바 이날第一戰에 中東과第二高普가 對戰한結果五對一로中東一勝하야第二回戰에서 徽文高普와對時케되엇다

【中東】
鉉德山郁杓 京根基欽鈞燮
守德鳳振昌 之一順星淳亨
全宋金金崔 田辛李崔鄭尹
WF HB FB GK

【二高】
五鎬鍾憲錫 圭奭淑壽伯煥
炳甲大炳炳 炳榮榮必煥復
朴李朴崔趙 林金金金朴金

中東 5 {3 2 / 1 0} 1 二高
【第一回戰】 十七日午後三時三十五分開始 審判 金和集(主) 朱大德 李致淳(線)三氏 (개임七十分)

全朝鮮蹴球 對陣決定
二十一日부터열릴

大阪朝日新聞京城支局主催第八回全朝鮮蹴球大會는 來二十一日부터三日間 京城運動場에서 擧行할터이라는데 參加한七團體의抽籤結果는 다음과가트며 이번에는 特히朝鮮의重鎭平壤蹴球團도出戰케되엿다한다

【第一回戰】
A、世醫專 對 普成專門
B、延禧專 對 平壤蹴球
C、徽新校 對 京城高商

【準決勝戰】
D、鐵道局對A의勝者
E、B의勝者對C의勝者

【決勝戰】
D、의勝者對E의勝者

그리고入場式은 二十一日午後零時三十分에 擧行한다하며 二十二日은 午後二時부터 二十三日은午後三時에 決勝戰을擧行할터이라한다

第六回 全京城幼稚園聯合園遊會

今十八日午前九時半 景福宮뒤景武臺에서

參加幼稚園

水標幼稚園	甲子幼稚園	中央保育幼稚園	業峴幼稚園	新門內幼稚園	南大門幼稚園
東幸幼稚園	中央幼稚園	和光幼稚園	惠光幼稚園	往十里幼稚園	朝陽幼稚園
富井幼稚園	愚信幼稚園	三光幼稚園	樂仁幼稚園	新明幼稚園	槿花幼稚園
泰和幼稚園	麻浦幼稚園	安國幼稚園	阿峴幼稚園	西大門幼稚園	明德幼稚園

雨天順延

主催 朝鮮日報社

白毛·赤毛染
君が代
기미가요
婦人은 爲先白毛染
얼골은白粉…… 입은분홍……
眉毛에는眉墨……
髮의化粧은君が代로부터
君が代는 엇더한白毛나赤毛라도洗髮합니다、물들기쉬우며、오래가며、毛髮을傷치안으며、머리털이잘퍼집니다 한번試用하야보시옵
定價 新小粉製 二十錢 液製 四十錢 五十錢
德用 二十錢
全國藥店에잇습니다

ツー2
東京日本橋 本舖 山吉商店 電話浪花 振替東京一九三七二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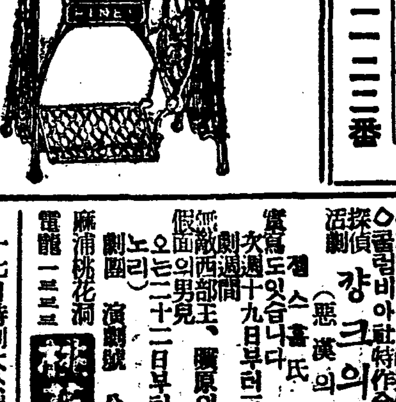
速히난는淋疾藥
特製 루ー베리
藥價 二円、三円、五円、十円
大阪市南久太郎町堺筋 竹村製劑所 振替大阪三六〇番
全國到ル處ノ藥店ニアリ

登錄商標 거북선
고무신은거북선
京城東大門外 서울고무工社 電九一一五九

確實無休 副業
小資本으로 本副業삼어조혼일거리가되는 紙袋製造를推奬합니다 優秀한機械로 作業簡單 各地遠近을가리지안코 婦人兒孩들도製造할수잇소 製品은永久確實히原紙代金으로買受하고 材料의原紙도弊店에서付送하는故로 原料買入에苦心하실必要업소 下專屬製造者를募集中인즉 詳細한見本說明書를드리오니照會하시요
大阪西淀川區大和田町 丸見屋本店 振替大阪五九三六番

オールスチノル
ペント式金庫
倉庫扉
手提金庫各種製造
大阪市東區內久寶寺四丁目(松屋町東入)
卸商 古谷金庫製造所 電話東貳六九六番

파인재봉틀
十五種足踏型 百十六圓
十五種手廻型 九十八圓
廿八種手廻型 六十五圓
部分品、針等全部싱거ー재봉틀과共通합니다
市內만限해서月賦販賣함
各種재봉틀目錄進呈
京城鍾路二丁目二七 楠재봉틀店 電話光三九六番



中央計算會加盟店
京城蓬萊町一ノ四
三和運輸組
海陸物産 鐵道貨物 倉庫業 取扱
李載晛
電本三三一九番 振京一二二二番

●愛用합시다
朝鮮産純麻布
太極星 YMS 純麻
世昌苧鮮布
世昌廣唐布
綿糸와交織한僞造物이만사오니特히商標에注意하시오
京城府太平通二丁目 德國洋行織物部

新興キネマ新春超弩級
以來の巨匠阿部豐が斯界に一大破紋を描きし名篇大作の石曲線!!正に初夏映畫界への巨彈何人も見逃すなかれ!!此の豪華版を
雜誌日の出連載
原作 牧逸馬 監督 阿部豐 撮影 三木茂
心の波止場 全拾二卷
主演 小杉勇 中野かほる二役
大共演 由利健次 河津清三郎 沖悅子 見桂珠子 助演 明見風太郎 浦邊粂子 師田敬治 外現代劇部オール精銳出演の當々陣!
日の出三百萬讀者熱讀の問題の映畫化 全女性待望必見の名畫!! 近代女性が黃金と愛の桎梏を描かんとする浪の問題作!!
パラマウント提供
コロムビア三四年度超弩級日本版
原作 アンソニイアボット氏 監督 アーヴィングカミングス氏
ナイトクラブの女 全九卷
主演 アドルフマンジュー氏 助演 メーロメソツト スキーツギヤラガー
永樂町一 電本三三四 中央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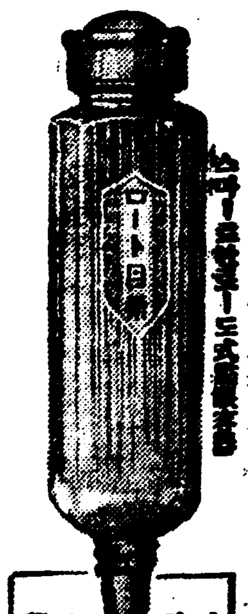
十七日特別大公開
薫る五月の風に乘り『新しき天』
實寫 來週十九日부터三大西部大活劇 無敵西部王、曠原の伊達者、假面의男見
劇團 演劇號 公演 노리 오는二十二日부터 (四月八日)
麻浦桃花洞 電龍一二三五 桃花劇場

五月十六日밤브터特別大公開
問題의大名篇突然今週의封切
◇파라마운트社超特別全發聲日本版
悲劇? 大名劇 제니ー의一生 全十卷
監督 마리온케링 主演 실뷔아시드니 프렛드릭마-취氏
果然! 世上의視線이모도가이名篇의集中되여잇는참된形情의눈물의珠玉篇! 편이시여이名篇을見失치마시라
◇파라마운트社特作全發聲日本版 探偵活劇 강크의딸(惡漢의딸) 全八卷
仁寺洞 電光三三二 朝鮮劇場

五月十七日밤부터 普通料金新陣容으로 太陽劇團 小中央大公演
朴谷南作 第一週
悲劇 도루가는 아버지 二幕三場
柳長安作
爆笑劇 一人二役의 내외싸움 全一幕
喜劇 獨唱……崔承伊、尹白丹、崔永伊、全玉、姜弼子、崔南鳴、其他斯界各歌手
特別演 朝鮮樂壇의新寵 女流歌手 오리엔탈、랑고밴드特別奏
李白水作 사랑은鬪爭이다、二景
一堂堂한陣容一 李素然、姜弘植、李白水、黃徹、李福本、梁白明、柳長安、康唯一、全一、全玉、金蓮實、羅品心、尹白丹、崔承伊、柳在鳳、其外多數
特別豫告‼世界의問題映畫‼ 파리의거리와등불四十二番街 南國의哀愁、狂亂의몬테칼로

玲瓏·鮮銳한眼!!

結膜을刺戟하는强烈한光線과숨막히는塵埃、소리도업시襲來하는病菌의脅威―激甚한生活戰의前線에서奮鬪에疲困한눈에安息과榮養을與하라、그것은近代人의用意다、常識이다、「世界의眼病國日本」의不名譽로부터解放되기爲하야于先眼藥의選擇을勿誤하라



로ー도式點眼容器

[illegible] 의고무를조금누르면一滴식點眼할수잇소、藥이조곰도浪費되지안코便利、衛生、經濟를兼한新案特許의容器입니다。

現代眼科藥의最高標準을것는것

로ー도안약은 本邦眼科醫界의權威、井上獨國醫學博士가國民眼科衛生의 立場에서治病上及健眼上、가장有効하다는優秀한處方을藥學博士中尾萬三先生指導下에 嚴製한것이니我國醫學、藥學의粹를모아現代眼科藥의最高標準을것는것이니다

家庭藥의使命―効力第一

손쉽게使用하야眼疾을 趁即곳치다는것은家庭藥인眼藥의第一使命입니다。로ー도안약은優秀한收斂作用、防腐、殺菌作用、消炎作用、鎭痛作用等무릇眼疾의治療에必要한 諸作用을 完全히具備하고從하야、何等他藥液으로눈을씨슬手苦를덜고그러고도超스피ー드的藥効를가진것입니다

눈을刺戟치안음(쓰리지안코압흐지안함)

로ー도안약은 奏効迅速할뿐아니라點眼하야눈에不快한刺戟업고(쓰리지안코압흐지안함) 點眼後참말『눈이깨는듯한快感』을느끼는것은그자랑할만한特色의하나이니이것은眼疾治療上은勿論、스포ー츠의前後或은讀書、記帳、裁縫等細密한일에從事할때에使用하야最良한、効果를보십니다。

最大의信賴―日本一의販賣高

로ー도안약은現에그販賣高에이서 斷然日本一인榮譽를 保有하고잇습니다。이顯著한事實은로ー도안약이近代人의要求에 完全히合致하야社會最大의信賴를受하고잇슴을 가장雄辯으로말하는것입니다

適應症

結膜炎●結膜充血
疲勞眼●學校眼炎
角膜炎●眼瞼緣炎
角膜翳●토라호무
麥粒腫●淚囊炎等

俗稱 充血된눈、돌림눈、血眼、진물른눈、눈곱낀눈、雪盲、凝眼、흐린눈、삼눈、찔린눈、다리깨、濁한눈、부은눈、마른눈等

生産合理化의結果

藥價低廉

自働點眼容器入

德用	五十錢
大瓶	三十錢
小瓶	二十錢
小兒用	二十錢

◎全國各處의藥房에서販賣함

視力保健運動의第一線에선

世界的眼科藥―井上獨國博士處方

効力第一 로ー도안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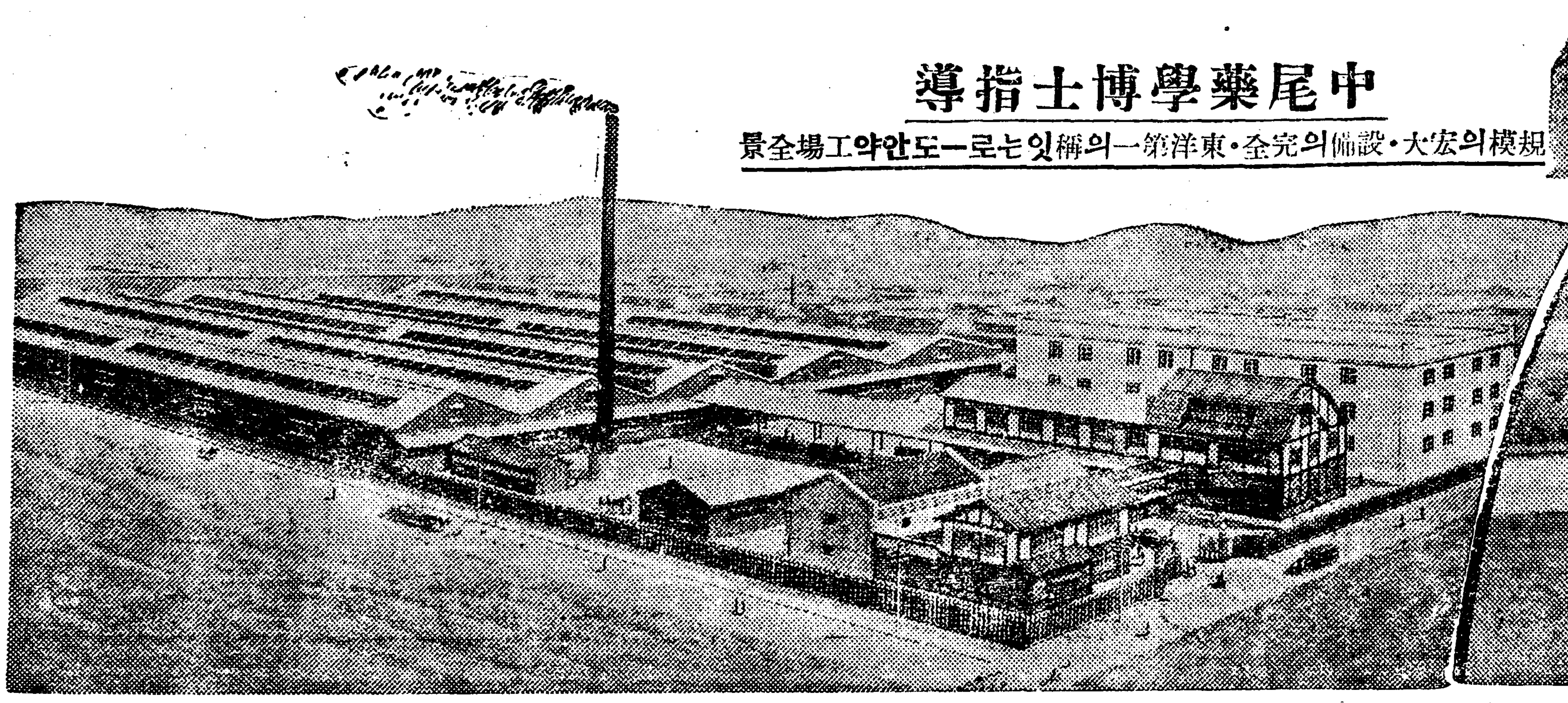
小兒用로ー도안약에就하야

小兒用로ー도안약 은十五歲以下의小兒、乳兒의眼疾治療及豫防을使命으로하고 處方된것이니 안쓰리고、안아프고 아모리어린애기네에게도便하게安心使用할수잇습니다。

大阪市東區南久寶寺町
本舖 山田安民藥房

中尾藥學博士指導

規模의宏大·設備의完全·東洋第一의稱잇는로ー도안약工場全景



平壤五個借地組 聯合會를組織
借地借家法實施促進

【平壤】 악덕지주들의무리한 차지로(이십할내지삼십할로)인상에맞아 대항하기위하여 조직된 평양부내 각차지인조합에서는그동안 인하운동을 맹렬히하는일방 차지차가법(借地借家法)실시를부르지즈며 직접、간접으로 만흔활동을 하고잇든중 금번 일부분끼리 이에대한운동을하는것보다 좀더 확대강화식혀 적극적으로 운동을 일으키는것이 유리하겟다는 것으로경창리(景昌里)、신양리(新陽里)、만수대(萬壽臺)、서평양(西平壤)、기림리(箕林里) 등오개조합이 지난십삼일에 각조합대표자들이 회집하여 련합조합을 결성하기로 가결되여십칠일오후팔시 삼신분부터 부내리문리(里門里) 백선행기렴관(白善行記念館)에서련합총회를 개최하기로 되여잇다 한다

그러고련합회가결성된후에는 차지인대지주간에일어나는모든 문제는 동회가교섭해결 할것은 물론이고 좀더나가서 조선에차지차가법의 제정공포의 실현운동을 일으킬계획이라는데 압흐로어떠한 결과를나흘는지 매우 주목된다

釜山支局後援 映畵大會開催
山里學院爲하야

【釜山】 부내영주정(瀛州町) 산리학원(山里學院)은오래전부터 무산아동교육에 힘써오든바 금춘신학기부터 초등강습소의 인가를바다 당국의공인 교육기관이 되엿다함은 긔보한바이나 리근웅(李瑾雄)씨가 원장으로 취임한이후 교사확장과 내용충실에 일층힘써 동학원유지회에서 직접간접으로 계획완성에노력하여왓스나 경비의부족 으로 일반의 찬조를엇고자 금번본보 부산지국의후원을바다자선흥행을하게되엿다는데 오는십구 이십일일의 삼일간초량중앙극장에서 조선명화(名畵)아리랑그후편의 활동사진 대회를개최하기로 하엿다한다

合一校의新設立者 吳晗拿女史就任
五月五日附正式認可

【江華】 강화합일학교교장최상현(崔尙鉉)씨가 오만여원의 토지를 희사하고 서거한뒤로신설립자를 고최상현씨의 미망인오합라녀사로 신청하엿든바 지난오월오일부로 인가가되여 정식취임식을 오는 십구일에성대히 거행한다고한다

(사진…신설립자오합라녀사)

黃海主校協議會 第十回定總

【長淵】 황해도내에산재한삼백에 달하는주일학교의 발전책을 지도연구하는 긔관인황해주일학교협의회 (黃海主日學校協議會) 는지난 십사、오량일간장연 송천교회당내에서 제십회정긔총회로 회집하야 회장김정묵(金正默)목사의 사회로 개회한후 제반사무를 일사천리적으로 진행하엿다는바 금번에특별한 사정은 삼년에일차식개회하는황해주일학교대회를 명년춘긔에 장연읍에서 개최하기로되엿다는바 금번신임임원은 다음과갓다한다

▲會長金在錫 ▲書記鄭濬鉉 ▲會計洪淳植 ▲總務張弘範 ▲委員吳章煥外一人

少年竊盜團橫行 一夜에三件檢擧
大邱署에서嚴重取調

【大邱】 권태(倦怠)를둑기는 첫여름밤에 끈히잡드른 대구의 거리에는 소년절도단(少年竊盜團)이도량(跳梁)하야 각방면으로피해가 만타는데 작십사일밤에만다음과갓튼사건이대구에검거되엿다

◇

덕산정(德山町)이삼삼번지박복치(朴福治)(一五)가단장이되여 지난 사월십일부터림상긔(林相基)(一五)정남택(鄭男澤)(一六)강두진(姜斗鎭)(一六)등을인솔하고 대화정(大和町)칠칠번지의소림(小林)철물창고에드러가서장을쇠삼백오십개(시가약삼십원)를절취하야남산정리명옥(李明玉)에게팔고 또원정(元町)삼중정(三中井)백화점에『아지노모도』일관을 훔처원정추국떡집 왕은승(王恩昇)에게파랏든것을대구서원의손에붓들니엿다

◇

남산정(南山町)이사일허섭(許燮)의삼남 허헌(許憲)(一七)이와봉산정(鳳山町)오삼번지량병긔(梁炳基)의장남량시영(梁時榮)(一六)량명은 지난사월십일일경부터 삼중정(三中井)에서 가격 오원이십전 가량의 물품을 절취하고 계속하야 각처에수건의범행이잇섯다는것을역시대구서원이 그의자택에서 붓잡앗스며

◇

덕산정(德山町)이일사번지권이암(全二岩)(一五)은지난사월이십일경부터 남성정(南城町)리종서(李鍾緖)방에서조타모(鳥打帽)등을비롯하야 수처에잡화류를 절취한 사실이발각되여그도대구서원의 손에 체포되엿다고한다

廣州支局主催의 申不出漫談大會

【廣州】 본보광주지국에서 신불출(申不出)씨를 초빙하야만담대회를 개최코저함은 임의긔보한바와갓거니와 금월십구일오후팔시부터 광주공립보통학교 강당에서 개최하기로 확정되엿다 본보독자는 반액으로 특별우대케되엿다한다

海平桃李寺 探勝團員募集

【善山】 경북선산해평도리사(海平桃李寺)는 삼남에 유명한 려사를가진 고찰인바 금번당지에잇는각신문지국련합주최로 오는 이십칠일에 그명승고찰을 탐승하기로하고 단원을 모집중인바 유지제씨는 이십오일까지 각지국에신입하기를바란다고한다

地方人事

▲李啓白氏(本社新京支局總務兼記者)局務를 帶하고十七日부터一週日豫定으로京圖線方面으로出張

▲松田多七氏(高原郡內務係主任兼庶務係主任)赴任人事次去十三日本報高原支局來訪

釜山 山里學院映畵大會
▲時日 五月十九日부터三日間每夜
▲場所 草梁中央劇場
◇主催 山里學院維持會
◇後援 朝鮮日報社釜山支局

廣州 申不出漫談大會
▲時日 五月十九日午後八時
▲場所 廣州公普校講堂
◇主催 朝鮮日報社廣州支局

安東縣 安東縣脚戲鞦韆大會
▲時日 陰四月十八·十九·二十·三日間(雨天順延)
▲場所 六道溝廣場、競馬場側便
◇主催 安東縣居留民一同
◇後援 安東縣朝鮮人青年會 東亞、朝鮮、朝鮮中央滿蒙四支局

禮山 禮山商民大運動會
▲日時 五月二十日(日曜)午前九時
▲場所 禮山公立農業學校運動場
◇主催 禮山商友一同
◇後援 東亞朝鮮兩支局

黑橋 青年演藝會
▲時日 음四月八日午後八時
▲場所 朝陽館
◇主催 朝陽青年會演藝部
◇後援 黑橋有志一同、三千里黑橋支社、朝鮮日報黑橋支局

偵探小說

艶魔【3】

徐東山 作 金奎澤 畵

손가락한도막(3)

오복이는 저긔도 중턱까지 맛친터이나 제게 물으든 영호의 그영어를 알어듯지못하엿다

「네?」

「자네는 안보앗스리만은」하고 영호는 설명을한다

「터 스파스이드아웃 어 씨ー크레트란 단편 소설인데 주인공이 어느 착잡한거리에서 누른칠을한 마차를타고잇는썩은에드든 녀자하나를 발견햇단말이야 그래 그녀자를 다시좀 맛나보령으로 매일 그거리에 나와서 마차란마차는 모조리 끼웃거리고 다닌다는이약인데ー 그러다가필경 어느 연회에서 맛나가지고 연애를 잡지 하기는 햇지만……」

「그러면 선생님도 인제 맛나시기는 맛나시겟습니다」

오복이는 영호가 채 말도 끗내기전에 우스면서 말허리를잘는다。

「머 어째?」

영호는 나무라는듯하나 눈으로는 웃는다

「이사람 소설이약이를 하는데내가 맛나기는 누구를 맛난단말인가?」

「하ー人다 그러케 시침이를 떼실것도업고 또 못맛나신다고 걱정하실것도 업습니다 아마추어탐정 백영호씨요 또그수하에 이 오복이가잇는데 어떠케한들 못차저내겟슴니까?」

오복이는 신이나서 활개를 크게치며 뽐낸다

그러나 영호는 고요히 고개를 흔든다。

「그건 안돼……내가 무슨 탐정을 직업적으로 하는배도 아닌데 그바법으로 그이를 차저내려 드는것은 어쩐지 불순하고 죄스러운것가터서……」

이말에 오복이는 하하하고 크게웃는다

「제가 잘 아러맛첫지요?엇잿거나 선생님이 연애병에 걸니신건만은 사실이지요?」

「그러타네」

영호는 힘업시 대답을 한다 바로 한십여일전 일이엇섯다。

영호가 아침산보를하고 내려오느라니까 그때까지 보지못하든 이상한 산보객의 한상이 아래로부터 올나오는것이엇섯다。

하나는 남자로인인데 허ー연수염이 탐되거낫고 부대한 몸에잘올대인 키ー다란외투를 입엇섯다。

그엽에는 엽니서부터보아도 갓알피고 청초하게생긴 배ー쟁은 녀잔데 윤이 번질번질하는털외투에 역시 깨끗업는모자를 쎗섯다 외투면한늑한 보드라운 양장을 헤스리라고 영호는 생각하엿다

영호와 그안상남녀가 각가히 마주첫슬때에 흘연이 무엇에 놀나지아니하는 영호엿만 눈이 번쩍뜨엿다

영호는 차자가 평소에 애인으로 공상에 그러보든 그녀자를 현실에 맛나는듯하엿다。

갸름한 얼골에 녀여가치 노ー롤한 코 조고마한 입 역시 어린듯이 조고맛케 올나부튼 아래터 그리고 영롱한 두눈ー이녀자와 맛난것은 영호에게 커ー다란 경이요 또한 견델수업는 깃붐이엇섯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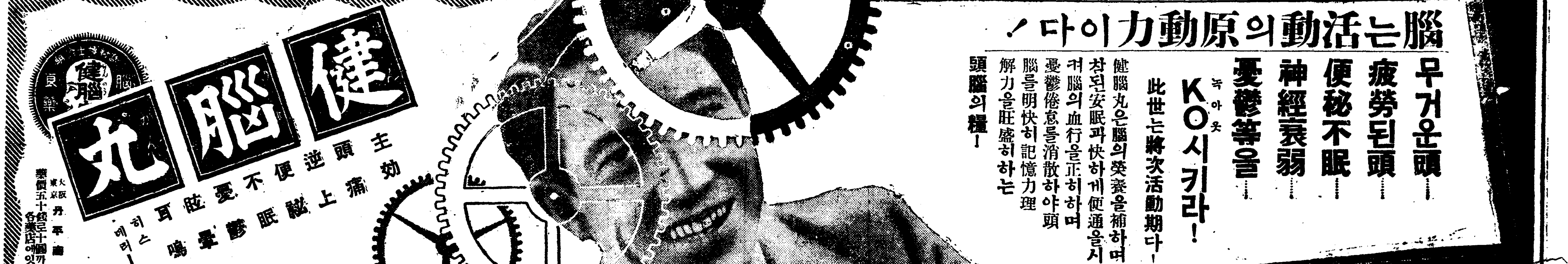
두사람을 지내처노코 영호는 체모도업시 도라서서 그들의 등뒤를 바라보앗다

운동화를 신엇기때문에 늘 하이힐만 신엇든듯한 거름매가좀 부자연스러워보이나 호리호리한 뒤태드까지도 영호가 심중에그리든 그녀자와꼭 가텃다。

영호는 그러케 놀내기는하면서 그래도 탐정식으로 여러가지것을 관찰하엿다。

즉 그 로인과 녀자가 얼골모습이 비슷하니 부녀(父女)간이라는것 그들의 입은의루며터옥히 로인의 쓴모자로 보아중국방면에서 도라왓스리라는것녀자는 무엇인지 고초를 격거왓기때 문에몰에 가벼운그림자가 끼고 또 안색이 약간 창백하다는것……。

그뒤 닷새동안 그러치아니하여도 명낭한 영호의 마음은 더욱히 명낭하여젓다。

그는 산보시간을 변경하여 여닯시로부터 시작하엿다 그리해야 그는 그들과 가치산보를하고 또 물러에서도 맛날수가 잇섯든것이다

취운정 산보터의 참새들은 이 새로 나타난 큰로인과어엽분 녀자의 이약이로 꽃치피엇다。영호도 그틈에끼어 그부녀의 내력과 근지를 들을가하엿스나 아모도 그것을 아는사람이 업섯다